

손으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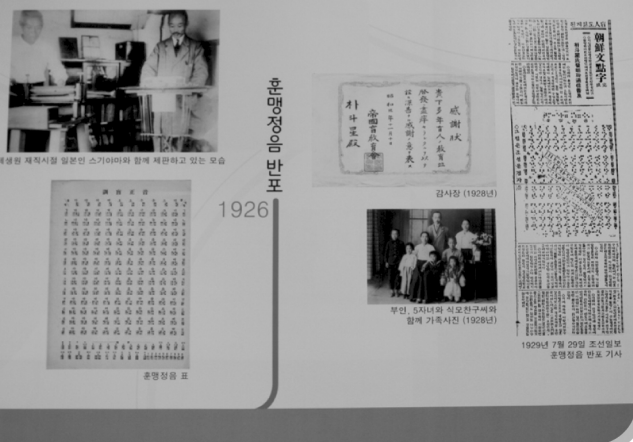
2008, November



손끝으로 보는 세계 명화



훈맹정음 창안과 보급 192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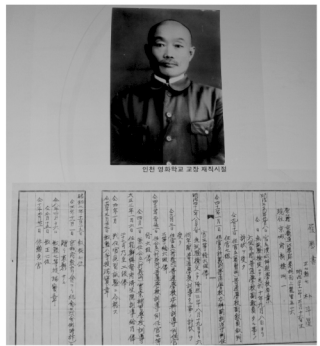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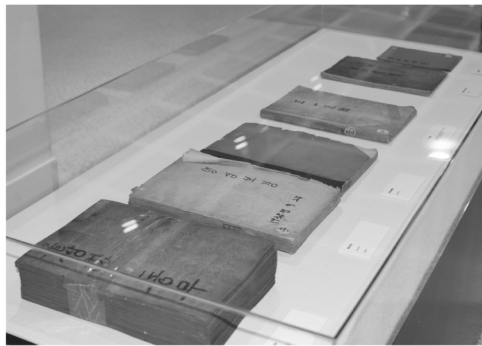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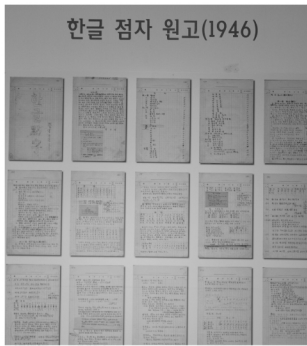


한글 점자 창안자

송암 박두성 선생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1888~1963) 선생이 탄생한 지 올해로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타계하기 직전까지도 시각장애인을 걱정하며 시각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시각장애인 교육에 헌신, 온 생을 바친 박두성 선생. 진정한 시각장애인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선생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여 년에 걸쳐 손수 점자 성경과 수많은 점자 도서를 출판-보급하는 등 개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도서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맹인 사업에 헌신했던 위대한 선각자였습니다. 또한 송암 선생은 시각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 사업에도 매진하였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침술과 안마를 교육, 시각장애인들의 재활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선생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심포지엄과 전시회를 갖고, 다시 한번 시각장애인을 위해 살다간 선생의 생을 기렸습니다.



토익 980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노동주씨, 다큐 제작해 화제



1급 시각장애인 노동주씨(26). 그는 얼마 전 토익 980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토익 980점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1급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고, 결국 낮은 나이에 광주세광학교(맹학교)에 입학하여 다시 안마를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시절 다발성 경화증으로 시력이 악화되었지만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그는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면접에서 탈락. 서류 전형에서는 합격했지만 면접만 봤다하면 탈락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은 탈락의 이유가 장애는 아니라고 말하였지만 결국 시각장애 1급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13분 19초짜리 미니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15일 동안 제작했다는 '당신이 고용주라면 시각장애인을 고용하겠습니까?' 라는 다큐멘터리는 9월 27일 KBS1 오후 1시 '열린채널'을 통해서 방송되었습니다. 이번 동영상 통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시민들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깊은가를 이 사회에 알린 것만으로도 성과를 얻은 셈이라는 게 주위의 평입니다. 요즘 그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광주세광학교에서 안마를 배우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공직진출대비반에서 공무원시험도 준비하는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게다가 영화감독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그는 시각장애로 인해 꿈을 포기한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꿈을 찾을 수 있는 용기가 비춰졌으면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NEWS ALBUM]

● ● 제29회 세계 흰지팡이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재활복지대회



2



1



3

제29회 흰지팡이날 기념 시각
2008년 10월 15일(수)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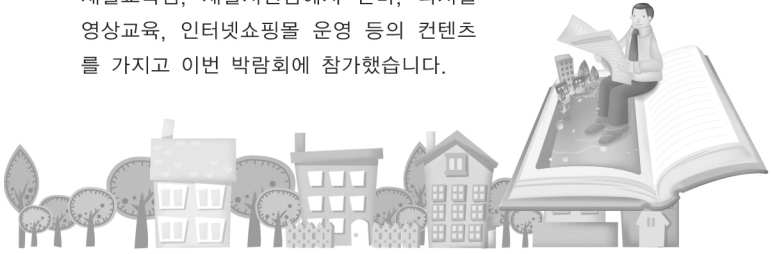
1. 경품 추첨을 하고있는 한정석 관장(서울특별시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판)
2. 축하의 꽃다발을 안고 있는 수상자들
3. 기념식 후 문화행사도 가져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4. 윤석용, 손숙미, 박은수, 광정숙의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였다.
5. 시각장애인여성중창단 누리봄의 공연장면

● ● **우리는행배 시각장애인 골프대회**



● ● **2008 장애인 취업박람회**

재활교육팀, 재활지원팀에서 안마, 디지털 영상교육, 인터넷쇼핑몰 운영 등의 콘텐츠를 가지고 이번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 ●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 **OB맥주와 시각장애인이 함께한 텐덤사이클 어울림축제**



당당하고 자신있게!!

여성시각장애인 여가문화활동지원사업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여성시각장애인을 위해 여가문화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당당하고 자신있게!!'를 테마로 하며, 메이크업과 댄스, 손뜨개 교실, 나를 찾아 떠나는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각각의 자신 있는 개성 표현을 위해 메이크업, 헤어, 패션교실을 열고 있으며, 댄스교실에서는 끼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발리댄스와 스포츠댄스 등을 배웁니다. 또한 정기적인 문화탐방을 통하여 문화체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여성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를 넘어 '당당하고 자신있게!!'를 외치며 자아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 메이크업교실



●● 댄스교실



●● 손뜨개 교실



●● 문화탐방





왼쪽부터 페레이라 대사, 크리스띠나 포르텔라 작가와 권인희 회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예술 ‘침묵의 색’ 전시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예술 ‘침묵의 색’ 전시회가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브라질대사관 주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후원으로 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나?”는 질문에 대해 브라질에서 온 조형예술가 크리스띠나 포르텔라(Cristina Portella) 작가는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문화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마음으로 예술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시력의 부재가 곧 장애는 아니며, 예술은 느낌이고 그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보기만하는 기존 관람의 틀을 깨고 관람객 자신들이 직접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면 오감을 통한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직접 작품을 설명해 관람의 재미를 더하였습니다.



“침묵의 색” 전시회를 주관한 브라질 대사관의 셸리나 두 발리 페레이라 대사.



권인희 회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 축사를 하고 있다.



향기가 나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나비를 형상화한 작품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관람객들.

2008년도 복지관 3/4분기 정산내역



■ 후원금

세입		세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계	57,296,687	계	57,296,687
후원금	985,400	음성정보서비스 기능보강비 선금지급	13,475,000
잡수입	9,707	이용자 휴게실 물품구입비	1,870,000
전분기이월금	56,301,580	이월금	41,951,687

■ 후원물품

세입		세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계	509,000	계	509,000
생활용품	509,000	교육생지급	509,000

* 후원안내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 32조, 법인세법 제18조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문의전화: 02-9500-104)

계좌번호 우리은행 : 1006-601-227253 (예금주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4권 11호 통권 100호

2008년 11월 1일 발행

발행처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전화 : 02-9500-136 _ 팩스 : 02-934-8069
 Homepage : www.kbuwel.or.kr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 139-831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71

제작 : 주비컴 디자인전문회사
 전화 : 02-2091-1255 _ 팩스 : 02-2091-1253

표지이야기 : 좌상단 : '제29회 세계 흰지팡이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재활복지대회'에서 권인희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우상단 : 이 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포상 등 총 48명이 포상의 영광을 안았다.
 좌하단 : 한글 접자 장안자 송암 박두성 선생을 기리는 '손끝으로 보는 세상' 전시회 장면
 우하단 : 송암 선생의 일대기